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0. 4. 28. / (총 9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	팀 장 담 당 자	홍 승 령 김 영 은	전 화	044-202-3575 044-202-3805
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	과 장 담 당 자	노 혜 원 이 승 훈	전 화	044-200-2293 044-200-2295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긴급대응팀	팀 장 담 당 자	오 준 혁 조 총 래	전 화	044-205-6520 044-205-6521
중앙사고수습본부 보험급여지원팀	팀 장 담 당 자	이 중 규 이 선 식	전 화	044-202-2730 044-202-2745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	과 장 사 무 관	황 영 호 김 성 일	전 화	042-481-4545 042-481-4385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- ▲ICT 활용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, ▲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,
▲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현황 등 -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강립 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차관)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 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·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,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안전에 대하여 각 부처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이 비교적 통제되고 있으나, 여전히 방역 관리 체계 밖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특정 종교, 불법체류 외국인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방역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.

1 ICT 활용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도입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제(4.27) ‘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’을 도입하였다.
 - 4월 26일 기준, 자가격리자는 총 39,740명이고,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,922명,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7,818명이다.
 - 17개 시·도에서 해외입국자 등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자가격리 시설 99개소(3,368실)에서 1,021명(4.26일 기준)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.
 -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는 ‘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’을 개발해 3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.
-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으로 안심밴드 도입과 ‘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’ 동작 감지 기능이 추가된다.
 -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, 일부 무단이탈 사례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가격리 위반 자가격리자는 ‘안심밴드’를 착용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.

< 안심밴드 작동원리 및 기능 >

- * 안심밴드와 휴대폰 간 블루투스를 통해 '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'과 연계·구동
- * 일정거리(20m) 이탈 또는 밴드 훼손·절단 시 전담관리자에게 자동 통보



- 또한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, 격리자가 알림창을 확인하도록 하는 동작감지 기능을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에 추가한다.
- 안심밴드 및 동작감지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(4.22)하였으며,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는 재외공관·항공사를 통해 홍보·안내를 마쳤다.
- 안심밴드 총 1,970개를 시도별로 배부하고, 안심밴드·동작감지 기능이 추가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신규 버전(v2.0)을 앱 스토어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2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 감염에 대비한 안전한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'국민안심병원'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.
- '국민안심병원'은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이다.
-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유형(A형)과, 선별진료소·호흡기 전용 병동 등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는 유형(B형)이 있다.

- 국민안심병원 시행(2.24) 이후 현재 상급종합병원 29개를 포함해 총 347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.
-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산정하고 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안심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 분리 진료 및 감염예방 활동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.

3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상황

- 4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694,48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다.
- 이 중 444,526건(64.0%)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320,384건(46.1%)에 대해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.
-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, 신청대비 보증서 발급 비율은 울산이 94.2%로 가장 높았고, 대전 (88.4%), 충북 (76.6%), 전남(76.5%)이 뒤를 이었으며,
- 대출실행 비율은 울산이 70.8%로 가장 높았고, 그다음으로 대전 (65.2%), 제주 (59.5%), 경기 (55.9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 < 붙임 > 1. 코로나19, 숫자로 보는 100일째 기록
2.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
3.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4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- < 홍보자료 별첨 > 1. 코로나19 예방수칙
2.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
3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4.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
5. <일반 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6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7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8. 마스크 착용법
9.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

붙임1

코로나19, 숫자로 보는 100일째 기록

□ 1.20.~4.26. 기간 중 통계

※ 현재 운영 기준이 아닌, 최다 · 누적 기준 (4.27 0시 기준)

< 인력 · 기관 >	< 검사 · 활동 · 소통 >
○ 참여 의료진 : 3,720명 - 의사 : 1,723명 -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: 1,534명 - 기타 인력 : 463명	○ 검사 건수 : 601,660건 - 확진 : 10,738명 - 결과음성 : 582,027명 * 검사 중인 결과 제외
○ 대구·경북 참여 의료진 : 3,020명 - 의사 : 1,195명 -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: 1,439명 - 기타 인력 : 386명	○ 확진 환자 : 10,738명 - 격리해제자 : 8,764명 - 현재 격리 중 : 1,731명 * 사망자 제외
○ 생활치료센터 : 18곳(중대본 운영) - 누적 입소자 : 3,947명	○ 선별진료소 : 639개소 - 총 검체 채취 : 485,949명 - 드라이브스루 : 71개소
○ 감염병 전담병원 : 74개소(누적) - 최대 확보 병상 : 7,564개(4.22)	○ 1339콜센터 상담 건수 : 1,647,625건 - 2019년 전체 상담건수 대비 12배
○ 국민안심병원 : 347개소 - 선별진료소 병행 : 231개소	○ 덕분에 챌린지 참여자 : 5,171명 * 인스타그램 내 #덕분에챌린지로 검색 수집(4.27. 12시 기준)
○ 중증환자 치료병원 : 97개소	○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률 : 88% * 점검 1,244,745회(3.22~4.25) - 현재(4.27) 이행률 : 97%
○ 음압병실 : 161병실 -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: 29개소	○ 브리핑 횟수 : 182회 - 인터뷰 : 29회

붙임2

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(4.23일 24시 기준)

□ 전국 집행 실적

-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.23일까지 총 694,482건*의 보증 신청을 접수, 이 중 64.0%인 444,526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, 46.1%인 320,384건의 대출 실행

* 중기부 코로나19 특례보증, 지자체 특례보증,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

* 신청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대기 건수를 합한 수치임

□ 지자체별 집행 실적 비교 (4.23일 기준, 누계)

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현황		
구분	보증서 발행 (4.23일 기준, 누계)	대출실행 (4.23일 기준, 누계)
총계	64.0%	46.1%
강원	71.0%	50.3%
경기	68.1%	55.9%
경남	53.9%	38.4%
경북	58.7%	32.1%
광주	72.4%	48.0%
대구	56.4%	36.6%
대전	88.4%	65.2%
부산	59.5%	50.4%
서울	61.3%	41.6%
울산	94.2%	70.8%
인천	61.6%	45.3%
전남	76.5%	50.9%
전북	56.8%	45.7%
제주	69.1%	59.5%
충남	55.9%	39.0%
충북	76.6%	53.9%

붙임3

코로나19 보도 준칙 [한국기자협회]

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 (2020.2.21.)

-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페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붙임4

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